

제목: 하나님 앞에서
 본문: 열왕기하 17:19-28
 설교: 김양재 담임목사

- * 19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 *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 * 21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 *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 * 23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 * 24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 * 25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 * 26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 * 27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 * 28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벳엘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 말씀요약

우리는 자발적 헌신은 불가하기에 감시, 감독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실히 일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왕왕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하고 도망하려 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인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1. 자기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19-22절]

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족속을 버리고 노략꾼의 손에 넘겨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유다 탓이라고 하십니다. 왜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해도 유다가 듣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쫓겨났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욕하고 탓할수 없습니다. 왜죠?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다윗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을 때 배신한 가장 큰 원죄가 솔로몬, 다윗,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너 때문에 이고생을 하는거야 물어내~! 이럴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다윗에게서 나라를 찢고 빼앗으신분은 여러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회개할거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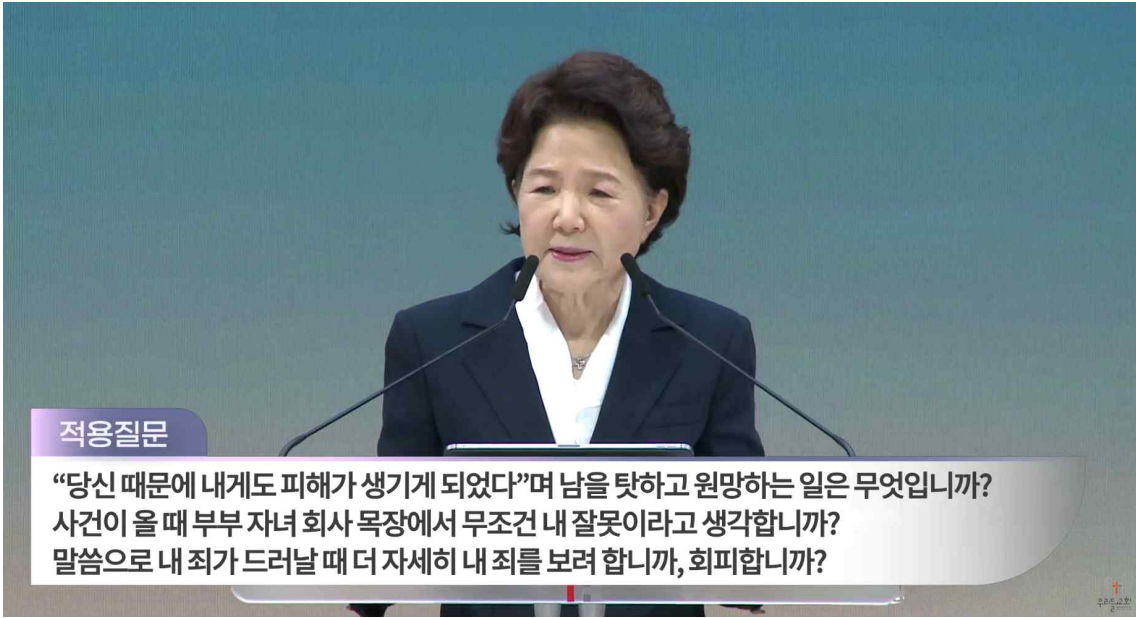
그앞에서 쫓아내고 제하시리라 구절이 나옵니다. 보통 그렇게 안하시는데 쫓아내려고 심사숙고 하신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정체성을 잃는 것보다 슬픈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함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시작은 좋았다가 끝에 망했는데 담쟁이 넝쿨같은 인간은 꼭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을 믿잖아요 필요하니까 믿다가 필요없으니 딱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믿으면 안됩니다. 원리를 역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면 죽든지 다같이 가든지 공산주의의 전제입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가져온 사상입니다.

한사람의 권세를 위해 성경의 위력을 아니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총살.... 못할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문자적으로.... 오징어게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었다고 똑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악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죄를 보지않고 인정하면 패배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듣지 않는 것은 똑같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곧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역설적인겁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수 있겠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손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서면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보기 싫어서 거울앞에서 떠나면 더럽게 살아야 하지만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울앞에서 더러운 것을 계속 닦아내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사람이 자기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는 사람인 겁니다.



적용질문

“당신 때문에 내게도 피해가 생기게 되었다”며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올 때 부부 자녀 회사 목장에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날 때 더 자세히 내 죄를 보려 합니까, 회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23-26절]**

내쫓으실 때까지 고향에서 쫓겨날때까지 죄악에서 돌이키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앗수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이다 하는데 천사가 아닌 사자 무리가 나타납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사자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않고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나 핵심은 모릅니다. 그땅신까지만 알지만 ... 하나님을 모르니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고 땅을 빼앗겼고 앗수르는 땅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했느냐 빼앗겼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밖에 없습니다.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은 땅을 차지하나 빼앗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요동치 않고 달려갈수 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앞에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러나 저러나 주여를... 불러요... 부를 이름이 주님 밖에 없습니다.

사도요한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택자에게는 날마다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엄마품으로 더 파고 드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께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3.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27-28절]

**평생 금송아지 섬기는 일만 했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을까
리가 없고 갑자기 흉내내고 억지로 바꿀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갑자기 세워진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스님이 구원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역사적인 대화가 시작되는데 복잡한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남편
5이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그땅신을 섬기는 신앙이었고 베델의 제사장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말씀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추고 싶은 다 무너진 인생이라도 성경을 교과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예배자가 될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라며 나가기를 주저한다면
아직도 그 땅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여인을 만나주셔서 여인이 다 와보라 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령이 교과서가 되실 때 누구나 신령한 예배자가
됩니다.**

**저는 예배할수 없는 사람인 성령과 성경을 주셔서
성경말씀대로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봉사와 섬김
가정학교 사회 나라에서 하는 모든일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떠나고 힘들고 멀어지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펴세요

